

수도권 인구, 사상 첫 비수도권 인구 추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10·20대 젊은 연령층이 일자리와 거주할 집을 찾아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동한 여파다.

지난 29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가 2천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계청이 보유한 1970년 이후 인구통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다소 주춤한 바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



▲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래픽=타운뉴스

수도권으로 순이동은 서울이 가장 많다. 전입 사유는 지난해 기준 직업(6만4천 명)이 가장 많았고 교육(2만1천 명)이 두 번째다. 다만 수도권 내부의 지형도를 보면 서울은 최근 20년간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져나간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로 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싼 집값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면서 재시동이 걸렸다.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수도권 유입이 최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30대 인구는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에서 유출된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40대 이상은 2008년 이후 순유출이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다. 사진=국방부

군 장병들이 일과 시간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유롭게 보내는 등 1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됐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해 온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이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사용 시간은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병사들의 출입을 통제했을 때 격리된 장병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전면 허용 시 보안 문제에 대비해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처벌 규정 마련과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같은 방식으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운영한 결과,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부대 기밀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틀 개최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명, 2명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취약업종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가 반대를 표하고, 공익위원 중 과반이 노동계를 거든 결과다. 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



▲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shutterstock

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임금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